

## 1장. 역사적 배경

19세기초의 서부 뉴욕은 개척지였다. 그리고 많은 개척자들이 그곳을 일구고 있는 시대에 조셉(Joseph)과 루시 마크 스미스(Lucy Mack Smith), 그리고 그들의 8남매가 있는데 그들은 전형적인 영국과 스코티쉬 계통의 뉴잉글랜드 인으로서 1816년에 팔미라(Palmyra)로 이사를 했다.

몰몬교(정식명칭은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인데 몰몬교로 잘 알려져 있으니 이하 몰몬교로 명기하겠습니다)의 창시자는 조셉과 루시 마크 스미스의 아들로써 8남매중 넷째<sup>1)</sup>로서 조셉 스미스 2세는 당시 교회의 교파경쟁과 세력확장의 혼란 속에서 불만과 환멸을 느낀 나머지 독자적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던 중 신적 계시를 받으면서 그로 인해 몰몬교가 시작되게 된다<sup>2)</sup>.

### (1) 조셉 스미스 2세

조셉의 첫 번째 환상은 당시 1820년 뉴욕주의 팔미라에서 개최되고 있던 부흥운동 기간 중에 그 지역 주민들은 감동이 된 듯 했으나 오히려 교파들 사이에 소동과 분열이 일어나자 조셉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교파들 중에 과연 어느 교파가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운 것이며 그 신자들은 다 부패한 자들이다라고 하며, 그들은 입술로는 내게 나아오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은 인간의 계명을 가르칠 뿐이며, 길으로는 경건의 모습을 꾸미나 그 속에 능력이 없도다”라고 하셨다.

조셉의 두 번째 환상은 1823년 9월 21일에 계시를 받았는데, 조셉은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두 번째 환상을 보았다. 한 인격체가 나의 침대 곁에 나타났는데 그의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는 공중에 서 있었던 것 같다.

그는 흰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 만치 영화로 왔다.

그는 내게,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로서 이름은 모로나이(Moronai)라고 말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시키실 일을 준비하시며 내 이름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 사이에 좋게 혹은 나쁘게 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황금 판에 새겨진 한 권의 책에 대해서 말해 주었는데, 그 책에는 이 대륙이 살았던 원주민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근원에 관한 기사가 적혀 있다고 했다. 또 그 책은 구세주께서 친히 원주민들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두 개의 돌들이 은테에 둘러서 황금 판과 함께 묻혀있는데, 이 돌들은 우림과 둠뎀이라 불리 우며 홍 패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고대에는 이들 돌을 사용하고

1) Gordon B. Hinckley의 몰몬교의 略史를 보면 조셉의 자녀가 8남매라 나오나 일부 책에는 10남매의 넷째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박영관, *이단종교비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pp.186.

소유한 사람이 예언자였으며, 하나님께서는 황금 판에 기록된 책을 번역 할 수 있도록 이 돌들을 예비 하셨다고 덧붙였다.

..... 그가 나에게 황금 판에 대해 말하는 동안, 내가 그 황금 판이 있는 곳을 알도록 내 마음에 환상이 임하였다. 그런데 후에 내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나는 바로 그곳이 환상을 통해 본 곳임을 알았다.

..... 뉴욕 온타리오 맨체스터 부근에 언덕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그 부근에서 가장 높은 언덕이었다. 이 언덕 서쪽 바위 밑에 황금 판이 들어있는 돌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 해준 대로 황금 판과 우림과 둠뎀, 그리고 흙 패가 있는 것을 보았다. .... 내가 그것을 꺼내려고 하자 하늘의 사자가 꺼내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 하였으니, 그때로부터 4년째에 꺼내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그는 4년 동안 매해 정확히 그곳을 찾아와 자기를 만나되 황금판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 1827년 9월 22일, 나는 다른 때처럼 황금 판이 놓여있는 곳으로 갔다. 그때 하늘의 사자가 나타나 나에게 황금 판을 내어 주면서 책임을 맡겼다. 즉 만약 내가 소홀하게 취급하거나 간수한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나 하늘의 사자가 그것들을 달라고 할 때까지 내가 노력을 다하여 지키려 한다면, 잘 보존될 것이라고 했다.<sup>3)</sup>

후에 조셉은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 있는 장인의 집으로 이주해서 그는 가상의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금판 들을 새겨진 문자들을 옮겨적고 그것들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는 뉴욕에 있던 농부 마틴 해리스(Martin Harris)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번역한 내용을 출판하게 되었는데, 해리스는 조셉 스미스에게서 그 서 판이 원래 개정된 이집트어로 쓰여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결국, 그 번역판은 완성되어 1830년 3월 26일에 판매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오늘날 몰몬교의 물문경이다. 그리고 그는 1830년 4월 6일 화요일에 최초로 6사람으로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를 공식적으로 설립하였다.

조셉 스미스 2세는 물문경 번역에 조력을 해주었던 올리버 카우드리(Oliver Cowdery)와 서로 안수례를 거행했고, 그들은 스스로가 최초의 몰몬교 장로들이 되었다. 또한 그들은 아론의 신권을 가졌다고 한다. 조셉 스미스 2세는 본격적인 포교 활동과 몰몬교의 시온성, 혹은 약속의 땅을 구축하기 위해 1839년에 미시시피강가에 정착지를 만들고 그 이름을 나부(Nauvoo)라 불렀다. 히브리어로 이 명칭은 「아름다운 땅」(Beautiful Place)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는 나부의 군대를 조직하여 스스로 육군 중장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미조리주의 주민들은 그들이 몰몬교도화 되기를 거절했으며, 몰몬교와도 자주 충돌을 일으켰다. 이것은 때때로 큰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싸움이 되기도 하였다.

당시의 나부 엑스포지터(Nauvoo Expositor)지는 몰몬교의 물의를 기사화 했다. 여기에 격분한 조셉과 그 집단은 신문사를 습격하여 불태워 버렸다. 몰몬교의 신문사 습격사건으로 조셉과 그 폭도들은 체포되어 일리노이주 칼타지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후 1844년 6월 27일 한 젊은 청년이 몰몬교의 비위사실에 울분하여 감옥

3) 조쉬 맥도웰, 돈 스튜어트, *이단종파*, (서울: 기독교지혜사, 2000), pp 98-100.

에 침입 하여 조셉 스미스 2세를 살해하였다.<sup>4)</sup> 몰몬교의 예언자 조셉 스미스 2세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것이다.

## (2) 브링함 영(Brigham Young, 1801-1877)

몰몬교는 조셉의 죽음으로 인해 후계자 문제로 파란이 생겼다. 그것은 교권 다툼과 분열에 의한 문제이다. 그러나 혼란 가운데서 몰몬교의 사도회는 브링함 영을 조셉 스미스 2세의 계승자로 선출했다.<sup>5)</sup>

영은 몰몬교 집단을 서쪽으로 인도하였는데 그 여행중에 인디안의 습격, 내적인 분쟁등을 포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드디어 그들은 1847년 7월 24일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하였는데, 그곳이 바로 몰몬교의 본부가 되었던 것이다. 1877년 영이 사망한 당시 몰몬교 추종자들은 약 150,000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영의 공적중의 하나는 1849년 멕시코 전쟁 때 남서부 전선을 방어하면서 그는 정부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아 5백 명의 의용군을 차출하여 공헌을 세웠는데, 이것은 몰몬교의 포교에 명분을 주게 되었다.

1850년 이후에 유럽에서 이민해오는 개종자들을 모아 몰몬교의 큰 집단을 형성하였고 1852년에 공식적으로 일부다처주의를 제창하여<sup>6)</sup>, 그는 25명의 아내를 거느렸고 56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는 76세를 일기로 1877년에 죽었으며, 이후로는 지도력의 부족으로 몰몬교가 쇠퇴기에 접어들었으며 장기간 계승자가 없었으나 이후, 존 테일러, 윌 포드 우드럽으로 이어졌는데 우드럽은 신의 계시를 받아 일부 다처제 폐지 선언을 했으나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그대로 행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고 하였다.

그의 후계자 로렌즈 스노우였고, 1915년 요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가정의 밤”이라는 가족 프로그램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가정을 중심한 몰몬교화에 목적이 있다. 현재 몰몬교는 “가정의 밤” 교재를 만들어 17개 국어로 발행하여 전 몰몬교 가정에 배달하고 있다.<sup>7)</sup>

그의 계승자는 그랜트, 그 다음은 스미스 그리고 1960년에 제 9대 대관장은 데이

---

4) 조셉의 죽음과 관련하여 또 다른 설은 한 젊은 청년이 아닌 한 약 200명 정도의 폭도들이 총을 가지고 감옥을 습격,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를 살해 했다고 하며 몰몬교도들의 주장이 담긴 책 History of the Church 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조셉도 가지고 있던 총으로 몇 명의 폭도를 쏘았다고 하며, 몰몬교도들은 조셉 스미스 2세를 순교자로 생각하고 있다.

5) 몰몬교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처럼 대관장 직속기관으로 12명의 위원들을 두어 그들의 대관장을 선출한다.

6) 몰몬교는 일부다처주의의 근원을 가나의 혼인잔치(요2:1-11)로서 해석한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결혼식이라 하며, 예수님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고 주장을 하며, 다윗과 솔로몬도 많은 처와 첩을 두었다고 설득시킨다 그러나 1946년 11월 18일 미 대법원은 “미국은 일부다처주의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6명의 일부다처주의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몰몬교는 1981년 이후에는 일부다처주의가 폐지되고 이것을 실행하는 자들을 출교 시킨다고 하였으나 계속 유지되고 있다.

7)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 한국 대회보, 1975. 8. 22.

비드 오 맥케이(David O. McKay)였다. 그리고 스펜서 떠블유 킴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약 150년간 12명의 예언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임명된 후계자로 자처하고 있다. 그들은 초기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종신직이 아니고 상징적 업무직에 있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이 성 베드로(마 16:16-20)의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처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들은 치열한 경쟁과 세력 다툼으로 인선된 교권주의자에 지나지 않는다.

## 2장. 몰몬교의 주장

몰몬교도들은,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참된 교회의 회복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몰몬교는 개신교도 아니며 카톨릭도 아니며 다만 참된 교회라고 주장한다. 「만일 조셉 스미스와 참된 교회의 회복이 없었다면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었을 것이다」<sup>8)</sup> 그리고 조셉 스미스를 연접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몰몬교도들은 자기들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주장하나 사실인즉 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몰몬교는 4권의 책을 경전으로 갖고 있다. 즉 성경, 몰몬경, 교리와 성약, 그리고 값진 진주이다. 또한 현존하는 예언자의 말도 그들은 권위적 근거로 여긴다.

### (1) 성경

몰몬교 신앙 조항을 보면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번역되어진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라고 되어있다.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성경의 올바른 번역은 불가능하다고 몰몬경은 주장하고 있다. 몰몬교 초기 사도인 올슨 프레트(Orson Pratt)는 성경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성경의 단 한 구절이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뜻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몰몬 교도들은 성경을 신봉하기보다는 오염이 안된 다른 세 권의 경전을 더욱 신봉하게 되었다. 이같은 일로 인해 몰몬 교도들은 이 경전이야말로 카톨릭교회가 의도적으로 삭제해 버린 교리들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새로운 비 성경적 교리들을 덧붙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성경이 여러 세기동안에 변경되어졌고 오염되어졌다는 그들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다.

### (2) 몰몬경

몰몬교도들은 몰몬경을 영감된 책으로 여긴다. “우리는 또한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이들이 성경보다 몰몬경을 우위에 둔다는 사실을 이것으로 미루어 알수 있다.

### (3) 교리와 성약

---

8) Bruce R. McConkie , Mormon Doctrine, p. 670.

이 책은 136개의 계시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계시들은 ‘천상의 결혼’과 ‘죽은 자를 위한 세례’와 같은 몰몬교의 독특한 교리를 보여준다.

#### (4) 값진 진주

이 책은 창세기 처음 6장까지의 내용과 대충 일치하는 「모세의 책」을 포함하고 있고, 이집트 파피루스를 번역한 것이라고 하나 나중에 사기였음이 판명된 「아브라함의 책」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또한 조셉 스미스 2세의 성경번역에서 발췌한 내용과, 조셉의 자서전인 「조셉 스미스의 역사」에서 발췌한 내용, 그리고 신앙 조항 등이 담겨있다.

### 3장. 몰몬교의 교리 비판

#### (1)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들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다”

위와 같은 몰몬교의 진술은, 몰몬교도들이 성경의 삼위일체 교리, 말하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자신을 삼위,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계시하시며, 이러한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교리를 믿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하나님에 대한 몰몬교의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 몰몬교도들은 여러 신들을 믿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자신은 한때 한 인간이었다고 가르친다<sup>9)</sup>. 더구나 몰몬의 남성들은 신격에 도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조셉 스미스와 브링함 영의 또 다른 성명은 몰몬교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는지에 더욱 상세하게 보여준다.

태초에 하나님들의 우두머리는 하나님들의 총회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에 사람을 거주케 하며 번성케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Joseph Smith, *Journal of Discourses*, 6:5).

아버지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만져서 알 수 있는 살과 뼈로 된 육체를 갖고 계신다.(Joseph Smith, *Doctrine and Covenants*, 130:2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은 성경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경전인 몰몬경과도 배치된다.

이제 지에즈롬이 엠올레크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느냐?’ 엠올레크가 말하기를, ‘그러하도다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 계시도다.’ 지에즈롬이 다시 말하기를,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더 계시느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엘마서 11:26-29)

이러한 점을 볼 때 이들의 논리는 자가당착으로서 스스로의 경에도 어긋나는 점등을 알수 있으며, 성경은 반복해서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

9) 조셉 스미스가 지은 King Follett Discourse, pp.8-10을 보면 진실을 볼수 있도록 베일을 벗겨준다고 하면서 복음의 제1원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땅위에 거하셨다고 하며, 그러므로 영생이 여기 있으니 이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또 왕들과 제사장이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하고 있다. 이사야 43:10은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여 선포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 인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숭배하는 거짓 신들과 우상들은 아무 쓸모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확신 할 수 있다. “.....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고전 8:4)

#### (2)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로 선재 하였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비록 우리들은 문자 적으로 예수의 형제들과 자매들이지만,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서 피조물인 우리들과는 구분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주장은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고 말한다.<sup>10)</sup>

#### (3) 인간에 대하여

몰몬교에 따르면, 인간은 영의 상태로 선재 하다가 세상에 태어날 때 자신의 육체를 취한다고 한다.

인간은 장막을 쓴 영혼이다. 인간의 지적인 부분은 결코 창조되거나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영원 전부터 존재하였다. 즉,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Joseph Fielding Smith, *Progress of Man*).

몰몬교 신학과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요한복음 1:14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위에 계시는 동안에 어떠한 인간이라도 도저히 성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셨다.

몰몬교가 말하는 우리들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신성모독이다.

#### (4) 구원에 대하여

몰몬교 신앙 조항 제 2항과 3항에 보면 구원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2항: “우리는, 사람들이 아담의 죄과로 인해 별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라고 믿는다.”

제3항: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모든 인간이 율법과 복음의 명령들에 순종함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처럼 몰몬교에는 온 인류를 위한 보편적 구원이 있으며, 각 개인을 위한 개인적 구원이 있다. 몰몬교에는 지옥이나 영원한 형벌과 같은 개념은 없다. 그들에 의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은 영광의 세 단계 중 하나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첫째는 천상의 왕국으로서 신들이 될 멜기세덱 제사장 회원들을 위해 예비 되어 있다. 둘째는

---

10) Elder B. H. Roberts citing Sir Oliver Lodge in Joseph Smith, King Follett Discourse, p. 11.

지상의 왕국으로서 천상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을 위해 예비 되어 있다. 셋째는 텔레스티알의 왕국으로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위해 예비 되어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거저 주신 은사이다. 에베소서 2:8-10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 사람의 선한 행위들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증거 할 따름이다.

#### (5) 시온성

조셉 스미스는 주장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말일성도들이 시온(미주리 주안에 있는 잭슨 카운티)에 한 성(城)을 건설할 것이라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했다고 한다. 조셉에 의하면 시온은 결코 그 장소로부터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의 글<sup>11)</sup>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또 하나의 거짓 예언이다. 조셉 스미스가 예언을 한지 약 170년이 지난 지금에 아직까지 그 자리에 단 하나의 성도 세워지지 않았다.

### 4장. 몰몬교의 예배의식, 제도(制度)와 생활

#### (1) 예배의식

몰몬교는 예배보다도 교육적인 면을 더 치중하며, 예배의식은 기독교와 비슷하나 특징은 매주 성찬식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예배 후 남자들만 모이는 “신권회”라고 있으며 여기서는 몰몬교의 발전에 대해서 토의하며 여자만 모이는 “상호부조회”가 있다.

그리고 성찬식에는 8세 이상이면 참석 할 수 있고 성만찬의 준비는 교사이상이 해야하고 성찬을 전달하는 것은 집사이상이 한다 물론 침례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석 할 수 있다. 몰몬교는 성찬에 사용하는 떡을 성병(聖餅)이라 하고 포도즙은 성즙(聖汁)이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마태복음 16:29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 하리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포도즙 대신에 물을 사용한다.

#### (2) 몰몬교인의 생활

몰몬교는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이단종파 가운데 하나이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미국이 시온이 되며 미국을 흩어진 이스라엘의 집합장소로 본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도 미 대륙에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시온 주의이며 미국주의이다. 이런

11) Doctrine and Covenants, 84:5, 31, September 1832.

미국주의 우월 의식은 미국 내에서 부흥을 하게 되는 이유도 되었으며 반면에 국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외국 포교자들은 미국의 정치적 첩자로 오인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일생동안에 2년간 무보수로 해외 포교를 자원한다. 자료에 의하면 1993년 당시 이렇게 입국한 포교자 들이 약 196명에 달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리고 그들은 실생활에서 독한 음료 곧 술을 금하며, 담배도 피우지 않고 심지어 흥차나 뜨거운 커피도 마시지를 않는다. 또한 물론 교인은 그들의 교리<sup>12)</sup>에 의하여 육류의 사용도 제한을 받는다.

### (3) 몰몬교의 의식제도

몰몬교는 그들의 신앙과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의식제도가 있다. 그것은 신전의식, 신권제도, 침례의식, 안수례등이다.

**신전예식**을 살펴보면, 현재 신전을 미국에 10개, 유럽에 7개, 극동지방의 1개처 등이 있다. 신전에는 특별 추천을 받은 회원들만이 신전의식에 참여 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는 특권이 부여되는 곳이기도 하다. 몰몬교는 지부와는 달리 신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신적계시의 장소로도 의미한다.

**신권제도**는, 아론의 신권과 멜기세덱의 신권을 통한 그들의 제도와 조직을 갖는다고 한다. 아론신권은 1829년 5월 15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지시로 침례 요한이 한 천사로 변화하여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준 것이라고 한다.

몰몬교는 아론과 멜기세덱의 신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구원의 의식을 인간에게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침례의식과 안수례**는, 몰몬교는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 즉 침례가 속죄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특히 소위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만 인정하고 있다.

특히, 유아세례는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의 교리에 어린아이에게 책임을 깨닫게 될 때까지는 사탄이 어린아이를 유혹하는 것에 대해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몰몬교는 성령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거행한다. 그들이 회원이 될 수 있기에는 죄의 사함을 위해 침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위한 안수를 받으므로 회원이 되는 것이다.

## 5장. 몰몬교의 과거와 현재

### (1) 몰몬교의 조직

몰몬교는 1830년 4월 6일에 공식적으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조셉 스미스 2세가 멜기세덱 신권을 계시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때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

12) “짐승의 고기와 공중의 새의 고기도 인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도록 주가 정해 놓았나니 조금씩 사용할지라” 교리와 성약 89:12-13.



신권의 정원회를 완전히 조직하는데 필요한 권능과 열쇠를 받았다고 한다.

몰몬교는 멜기세덱의 신권을 가진 대제사(大祭司)들중에서 세 사람의 관리 대제사가 선출되어 그 직분에 임명 선임되어 교회회원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서 지지되어 교회의 대관장단인 정원회를 구성한다<sup>13)</sup> 그러므로 대관장단은 대 신권을 관리하고 교회의 제반업무를 지시하며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결정을 짓는다.

몰몬교는 대관장 아래 12사도 정원회를 둔다.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같은 몰몬교의 사도들이다. 12사도 정원회 아래에는 70인 제일 정원회가 있으며 3인의 수석 감독직이 있다. 이것은 몰몬교의 최고 원로회이다.

그리고 이들은 조직을 나누는데 있어서 회원수로 나누는데 약 4천명의 회원이 모이면 스테이크(Stake)라 하여 스테이크 대 관장이 있고, 12인 대제사회가 있으며, 고등평의회가 있고, 대 제사, 70인 및 장로가 있다. 대 제사는 대관장단의 지시아래 자기의 지위에서 영적인 일을 집행하는 자이다. 그는 장로, 제사, 교사, 집사, 그리고 회원의 직무를 집행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70인은 12사도회 곧 순회 고등 평의원회의 지시 아래 교회를 설립하며 모든 백성 가운데서 교회의 제반업무를 실행하는 자이다. 장로는 침례, 성찬의식, 안수례, 그리고 모든 집회를 인도하며 멜기세덱 신권에 속한다.

그리고 600명의 회원을 갖춘 와드(Ward)가 있다. 여기에는 감독이 있는데 그는 아론 신권을 가지며, 48명의 제사, 24명의 교사, 12명의 집사를 관할한다. 제사는 설교를 하며, 가르치고, 해석하며, 훈계하고, 침례를 베풀며, 성찬을 집행한다. 교사는 교회회원을 돌아보고, 그는 교회의 상임역원이다. 그리고 집사가 있다. 몰몬교의 지부는 50명에서 200명내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몰몬교의 조직은 멜기세덱의 대신권과 아론신권의 소신권으로 구성되었다. 전자에는 대제사 70인과 장로가 있으며, 후자에는 제사 및 교사와 집사가 있다. 몰몬교는 1960년에 신권운영회를 조직했으며, 대관장단과 12사도 정원회가 이 위원회를 감독한다. 여기에는 4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 복음화, 선교사, 계보, 그리고 복지계획 분야이다. 이밖에도 몰몬교의 자치활동의 조직으로서 “상호부조회” “상호향상회” “어린이초등협회”가 있다.

그러나 몰몬교는 내부와 외부에 암흑의 그림자들이 많다. 그 첫 번째는 분열상이다. 그중의 하나는 「말일성도복구파」 혹은 요셉파로서 이들은 몰몬교의 정통적인 계승자는 조셉 스미스 2세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복구파이며, 또 다른파는 「그리스도파」로서 그들은 미조리주 롯 신전(The Temple Lot)에 본부를 갖고 있으며 그들은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가 아니고 그리스도파 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직계혈통을 받은 후예들이라고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방문했다고 주장한다.

## (2) 몰몬교의 한국역사

---

13) 교리와 성약 107:22.

몰몬교의 한국 포교부가 1962년 7월에 생겼고, 초대 포교 담당자는 “제일 이카” 장로였다. 1962년 9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에 소재 한 구 백운장 요정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 본부가 되었고, 삼청동의 스테이크 본부와 와드, 그리고 남대문로 남강빌딩 3층에 몰몬교 포교원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서대문구 신촌에 몰몬교 한국 포교원을 건축하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는 한국 동단에 참가한 군인들에 의해 부산에 최초로 거점을 가졌었다. 그 후 1951년 김 호직씨가 미국에 유학하여 몰몬교에 포섭되었었고 동년 7월 29일에 펜실베이니아주 사스케하나강에서 침례를 받고 몰몬교인이 되었다.

그는 귀국하여 문교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최초의 한국 몰몬교의 지부장이 되었다. 1952년 8월 3일 부산에서 최초로 침례의식이 한국인에게 베풀어졌고 그때까지 몰몬교를 신봉하는 군인들에 의해서 포교되었다.

1955년 8월 2일 요셉 에프 스미스(Joseph F. Smith)에 의하여 한국이 포교지로 지목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몰몬교의 포교자들이 1956년 4월에 한국에 왔다. 이때에 우리 나라 몰몬교인이 64명이었다. 1965년 8월 제 2대 포교담당자는 스펜서 제이 팔머씨였고, 대전, 광주, 전주, 인천에 지부를 설치했다.

1973년 3월 8일에 12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스펜서 떠블유 김블씨가 내한하여 서울 스테이크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1975년 8월 15일-17일까지 장충 체육관에서 한국 몰몬교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뒤로 제 3대 포교담당자는 로버트 에이취 슬로버(Robert H. Slober)로 이어지며 1993년 당시 우리나라에는 약 9천명의 몰몬교인이 있었으며 서울 스테이크 산하에는 8개의 와드와 4개의 지부가 있고, 2개의 포교부 산하에는 24개의 지부가 있다.

## 6장. 결론

몰몬교를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학을 정립해본다. 사실 몰몬교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포교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도 학생들의 질문에 양복입고 검은 명찰에 말일 성도예수그리스도교라고 써있으면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전부인 나로서 먼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몰몬교는 철저한 계시종교로서 몇 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난리를 쳤던 그들과는 다르게 조직적이고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자원<sup>14)</sup>과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대학<sup>15)</sup>도 있다.

지금 미국이 경제적인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몰몬교도들이 집단 거주하는 유타주는

14) 하나의 예를 들면 “현대종교”1996년 7월호에 특집으로 다루어진 ‘누스킨사(몰몬교도인 누스킨 씨에 의해 창업)와 몰몬교 관련설 시비’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보면 다단계 외국 화장품회사인 이곳은 교회에까지 침투되어 있고 특히 싼 가격의 외제 화장품을 살수 있다는 매력에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15) 미국에 브리감영 대학교, 릭스대학교, 말일성도 상업대학교, 하와이 교회 대학교등 그리고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호주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 독일등에 영어학원 그리고 종교학원을 설립하여 포교활동을 하고 있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세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불신자나 신자들이 이러한 몰몬교의 매력에 끌려 개종하는 경우도 있음을 볼 때에 우리 기독교는 이들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성경 적인 교리와 윤리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단을 물리 칠수 있는 가장 바른 길은 중세의 도미니칸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인 성 도미니크가 왈도파를 격파하러 갔을 때 체험 속에서 말한 것처럼 이단들보다도 더 높은 도덕적인 신앙의 실천이 있어야 하겠다<sup>16)</sup>.

모든 이단들이 특히 기독교에서 파생한 이단들이 그러하겠지만 성경의 잘못이해이며, 성경 66권의 계시이외에 있을 수 없는 또 다른 계시를 교리 화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문제는 먼저 말씀을 맡은 자들의 온전한 말씀선포와 바른 생활이 있어야 하겠으며 철저히 이단성을 파헤쳐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이들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 7. 참고문헌

### 국내서적

심창섭 외, 『기독교의 이단들』.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2000.

박영관. 『이단종파비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 번역서적

조쉬 맥도웰, 돈 스튜어트, 『이단종파』. 이호열역. 서울: 기독지혜사, 2000.

탁지원, 『몰몬교(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현대종교, 2002.

### 월간지

『현대종교』, 1996, 7월호.

### 사전

『기독교 사전』, 기독교문사.

### 성경

『한영해설성경』, 아가페.

---

16) 심창섭외, *기독교의 이단들*,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 교육부, 2000), p108.